

홀리타임즈

성막제사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목차 CONTENTS

The background image is a traditional Korean interior scene. It features a wooden table with a white ceramic jar and a blue patterned cloth. The scene is lit with warm, golden light, creating a serene atmosphere. The table is made of light-colored wood and has a simple, elegant design. The jar is white with a blue pattern, and the cloth is blue with a white pattern. The lighting is warm and golden, coming from the right side of the frame, casting long shadows and highlighting the textures of the wood, ceramic, and fabric. The overall mood is peaceful and traditional.

제 1 장 제사의 종류 _ 5

제 2 장 제사 방법 _ 35

제 3 장 절기제사의 종류 _ 44

제 4 장 제사장의 의복 _ 66

제 5 장 제사장의 부르심 _ 86

제 6 장 제사장의 직분 _ 102





1 장

/

제사의 종류

제 1 장 제사의 종류

훈련 목적

- * 성막의 제사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워바 필독글을 읽는다.

1. 번제(burnt offering)

가. 번제물을 가져온 주인이 직접 안수를 했습
니다

- 1) 번제물을 가져온 당사자는 직접 번제집
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는 당
사자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서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레 1:4-6).

- 2) 번제에 쓰일 짐승은 번제단 옆에 있는 번제소에서 죽였습니다. 번제소는 제물로 쓰일 짐승을 죽이는 장소였습니다.(레 4:29)
- 2) 번제짐승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짐승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레 1:11)

나.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 1) 번제짐승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졌습니다. 그렇게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들에 의해 번제단 사면에

[레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 것이요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1:11] 그가 단 복판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뿌려졌습니다. 이렇듯 뿌려진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요 6:54).

- 2)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떠한 장자의 죽임을 겪지 않았습니다(출 12:22-23).
- 3)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십니다(요일 1:7).

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겨졌습니다.

- 1) 번제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겨졌습니다. 그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레 1:8-9).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출 12: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레 1: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 2)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럽고 힘든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제사장이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성도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행해야 합니다.

라. 가난한 자도 번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 1)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번제물을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새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받으셨습니다(레 1:4).
- 2)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물 받치는 것에 대해 면제하지는 않으셨

[레 1:14]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습니다. 다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3)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즐거운 심령으로 자원해서 행하길 원하십니다(고후 9:6-7).

- 4)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시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말 3:8-12).

마.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 1)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방법은 화제(Burnt Offernig)입니다. 번제는 제사의 종류이지만 화제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

는 제사의 방법입니다(레 1:15-17).

- 2)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냄새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즐겨 받으십니다.
- 3)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 3:12]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레 1:15] 제사장은 그 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레 1:16] 맥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레 1: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 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 소제(grain offering)

가. 소제는 무엇인가?

- 1)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3)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빵아서 고운 가루를 내어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제에 사용된 기름은 감람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로써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유향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으며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4) 하나님은 짐승으로만 예물을 받지 않고 이처럼 곡식으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보여주신 것입니다(마 22:37-38).

나. 소제를 드리는 방법

- 1) 소제로 드려질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단에 화제로 드려질 수도 있었지만 화덕에 구워서도 드려졌으며 변철에 부쳐서도 드려졌습니다. 또한 솥에 삶아서도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레 2:4-7).

- 2) 유황없이도 화덕과 변철과 솥을 이용하여 소제를 드리게 했던 것은 유황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소제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3) 이러한 소제는 바치는 사람이 직접 행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레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레 2:5] 변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레 2: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레 2:7]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헌금만 바친다고 훌륭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 레위인이 남은 음식을 취함

- 1)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은 준비하여 가져온 소제물 중 일부를 취하여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레 2:8-10).
- 2) 소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돌려졌습니다. 남은 소제물을 가져온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레위인들이 취하도록

[레 2: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레 2: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룩 한 것은 소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민 18:8-9).

- 3)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물의 남은 음식을 레위인에게 주셨던 것은 레위인에게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스스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들 스스로 저들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민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 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라. 레위인은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 1) 소제물의 남은 음식은 레위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

게 명하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레 6:15-18).

- 2) 누룩은 세상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먹는 떡이 누룩없이 먹는 떡에 비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욕구를 없게 하신 것은 세상의 정욕을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 3) 장막 안 뜰에서 먹게 하신 것 역시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어찌면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을 나눠 먹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성막 뜰 안에서만 먹게 하셨습니다.

[레 6:15]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레 6: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레 6: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레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 4)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들에게 강한 명령을 주신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쳐진 레위인들을 강하게 인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민 8:16).

- 5)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3. 화목제(peace offering)

가.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 1)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소, 양, 염소였습니다. 이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제물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상한제물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 3:1).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사 1:13).
- 3)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 1:18)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나.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 1)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스스로 예물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이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화제로 드려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사용되기를 소원함을 뜻합니다 (레 3:2).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2:1-3).

3)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길 원하는 심령으로 드러지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드러지기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할 때 화목제를 드렸지만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골 1:20).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습니다(레 3:14-17).
-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기름과 피가 우리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기름과 피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좋지 않는 것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 3)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먹지 말아야 할 짐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레 11:3-23).

라. 화목제에 사용되었는 제물의 종류

[레 3: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16]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레 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 1) 화목제사에는 소, 양,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기름섞은 무교병과 기름바운 무교병, 그리고 기름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곁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로 드러지는 짐승과 함께 드러졌습니다 (레 7:11-14).

- 2) 이러한 병과류는 거제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제'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드러지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레 7: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마. 화목제의 종류

- 1)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낙헌제)'로 구분됩니다.
- 2)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

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달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레 7:15-18).

- 3)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당일에 모두 먹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이처럼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도 말며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 4) 하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제에 비해 훨씬 시간적인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심령은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서원제와 자원제의 희생고기를 이튿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5) 만일 어떤 제사장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러지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제삼일까지 남겨두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화목제는 열납되지 않았으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죄를 범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6)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 원하여 드린 성도의 헌금을 저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곧장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삼일까지 고기를 남겨두어 먹은 제사장에게 죄가 임하듯이 성도의 드린 서원헌금이나 자원헌금을 오래도록 저축하고 남겨둔다면 하나님의 죄가 없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드러지는 서원헌금과 자원헌금은 작정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 오직 깨끗한 자만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
있습니다.

- 1) 화목제로 사용된 희생고기는 정결한 고
기여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부
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면 그 누구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아니되었습니다.
먹지말고 고기를 불살라야만 했습니
다. 또한 화목제 희생고기는 오직 깨끗
한 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레 7:19-
21)

- 2) ' 깨끗한 자'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육적
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제사장은 희
생 고기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몸
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
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졌습
니다.

[레 7:19] 그 고기가 부
정한 물건에 접촉되었
으면 먹지 말고 불사
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
이니 [레 7:20] 만일 몸
이 부정한 자가 여호
와께 속한 화목제 희
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
요 [레 7:21] 만일 누구
든지 부정한 것 곧 사
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
중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
기 백성 중에서 끊쳐
지리라

사. 화목제는 본인이 직접 번제단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 1) 화목제를 화제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은 우리 스스로임을 의미합니다 (레 7:29-30).

- 2)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은 교회모임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못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 7:29]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레 7:30] 여호와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여 요제를 삼고

아.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아론의 자손들
에게 주었습니다.

- 1)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모두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편 뒷다리는 번제의식을 집행한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요제로 흔들어 바쳐진 가슴과 나머지 부분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레 7:31-34).
- 2) 하나님은 수고한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수고한 자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 3)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의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심으

[레 7: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레 7: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레 7: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레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로 성막의 제사에 쓰여지고 남은 음식으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레 7:35-37).

- 4) 이렇듯 제사장에게 남은 음식이 돌아갈 수 있었던 제사는 모든 제사에 해당되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모두 희생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레 7:35] 이는 여호와 의 화제 중에서 아론 에게 돌릴 것과 그 자 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 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 게 한 날 [레 7: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 사 이스라엘 자손 중 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 라 [레 7:37] 이는 번제 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 목제의 규례라

4. 속죄제(sin offering)

가.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
니다

- 1)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 의 금령' 이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 신 계명을 뜻합니다(레 4:2-4).

[레 4:2] 이스라엘 자 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 의 금 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 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 를 인하여 흠 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 니 [레 4:4] 곧 그 수송 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2) 고의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거나 부주의함으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3) 제사장은 속죄제로 드러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일곱 번 뿌렸습니다. 이는 속죄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오직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로 여기고 장로들로 하여금 속죄제로 드렸는데 이렇게 속죄제로 드러질 때만 행해졌습니다(레 4:5-7).

[레 4: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 4) 속죄제 의식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뿌림이 매우 복잡하며 회막 안에서까지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제의 경우에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지성소앞의 분향단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나. 속죄제의 짐승은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 습니다

- 1)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에 쓰였던 짐승은 반드시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습니다. 속죄짐승의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속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가시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다. 그렇기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속죄제로 드러졌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레 4:11-12).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히 13:11-12).

- 3)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렸습니다(히 10:19-20)

다.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 장로가 대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 1)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

[레 4: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레 4:12]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0:19] 그러므로

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를 지도자들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레 4:13-15)

- 2)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에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레 4:16-18).
- 3)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에 들어갈 담력을 얻
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레 4:13] 만일 이스라
엘 온 회중이 여호와
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
지 못하다가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
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것을 회막 앞으로 끌
어다가 [레 4:15] 회중
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
에서 그 수송아지 머
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 4: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
송아지의 피를 가지
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
에 일곱 번 뿌릴 것이
며 [레 4:18] 또 그 피
로 회막 안 여호와 앞
에 있는 단 뿔에 바르
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
을 것이며

5. 속건제(trespass offering)

가.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 1) 속건제가 속죄제와 가장 두드러지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지냈던 제사였지만 속건제는 일상생활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레 5:2-6).
- 2) 정결함은 속건제와 같아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뜻합니다. 반면에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레 5: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족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3] 혹은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4] 혹은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레 5: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도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레 5: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2 장

/

제사 드리는 방법

제 2 장 제사드리는 방법

훈련 목적

- * 성막의 제사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워바 필독글을 읽는다.

1. 화제(fire offering)

가. 화제는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 1) 화제는 모든 제사종류에 사용되었습니다(민 28:1-2).

[민 2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8: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 지니라

- 2) 소제는 곡식과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지만 소제에도 번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나. 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 1) 화제 방법이 제사 중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불로 태우는 제사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레 3:5).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 3)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제 방법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로 '불'로

[레 3: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 4) 하나님은 성막의 성물 중 번제단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명하셨습니다(살전 5:19).
- 5)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불로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셨을 때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행 2:1-3).
- 6)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불'로 표현하고 있으며 '불'은 곧 모든 악한 것을 태우며 또한 빛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1Th 5:19]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NIV)

[행 2: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 에 가득하며 [행 2:3]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2. 요제(wave offering)

가.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방법을 말한다.

- 1) 제사장은 요제로 드러질 제물을 손에 들고서 앞으로 뒤로 흔들기도 하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흔들기도 했습니다(레 23:20).

- 2) 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이 제사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 23:20]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3. 거제(heave offering)

가. 거제는 요제와 매우 흡사한 제사방법입니다.

- 1)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거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제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요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 2)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이는 '거제물'을 뜻하는데 '넓적다리'나 '어깨'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은 거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마음 속에는 '아~ 넓적다리'라는 생각으로 드려졌을지도 모릅니다.
- 3) 거제는 고기 뿐만 아니라 소산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레위인들을 고기와 소산물로 먹이셨습니다(민 15:17-21).
- 4)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

[민 15: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15: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민 15:19]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민 15:20]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민 15:21]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일부를 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막 10:29-30).

[막 1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막 10: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썩을 것을 겸하여 받고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4. 전제(drink offering)

가. 전제는 다른 방법과는 매우 독특하게 포도주를 붓는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민 15:5).

[민 15: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힌의 사분 일을 예비할 것이요

- 1)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떡상)에는 떡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포도주를 담은 병(jar)이 있었고 술을 따르는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 25:29-30).

[출 25:29] 너는 대접과 술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 2) 진설병상에서는 전제 의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3) 전제 의식은 독자적으로 드러지기 보다
는 소제나 번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젖
들어져 드러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
과도 같은 것입니다.

4)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전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
도열매가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아지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
게 주님을 위해 자기자신을 헌신하겠
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빌 2:17).

[빌 2:17] 만일 너희 믿
음의 제물과 섬김 위
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
하고 너희 무리와 함
께 기뻐하리니





3 장

/

절기제사의 종류

제 3 장 절기제사의 종류

훈련 목적

- * 성막의 제사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워바 필독글을 읽는다.

1. 상번제(regular burnt offering)

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민 28:3-8).

- 1)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수양을 상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민 28: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민 28:5] 또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일배 뺀 기름 한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민 28: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

- 2) 이것은 온전히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화제로 드려질 때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 3) 화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는 고운가
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빵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졌
습니다(민 28:5).
- 4)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
의 전제를 부어 드렸습니다(민 28:7).

로운 화제며 [민 28: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
을 드리되 거룩한 곳
에서 여호와께 독주
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민 28:8]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
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
제로 드릴 것이니라

[민 28:5] 또 고운 가
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빵아낸 기름 힌 사분
지 일을 섞어서 소제
로 드릴 것이니

[민 28:7] 또 그 전제
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께 독주의 전제를 부
어 드릴 것이며

나. 상번제의 영적인 의미

- 1) 고운가루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징하
는 것이며 그곳에 기름을 섞는 것은 성
령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상한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2) 독주는 세상의 것이지만 이 독주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정결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3)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롬 12:1).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안식일 제사(offering of the sabbath day)

가.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다가 안식일의 제사까지 더해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대략 상번제의 2배 정도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민 28:9-10).

[민 28:9]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에 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민 28:10]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나.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린 수양 두 마리와 기름섞은 고운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평일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더 특별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월삭 제사(offering of the new moons)

가. 월삭에는 매일 행하는 상번제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함께 드려졌는데 각 번제물마다 소제와 번제가 첨가되었습니다(민 28:11-15).

- 1) '월삭'은 음력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달의 첫째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 종교력과 함께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력과 민간력은 달과 함께 진행

[민 28:11]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곱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 28: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 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민 28: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되었는데 이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2) '수 송아지(bullock)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3/10 에바(Ephah)의 소제와 포도주 1/2힌(Hin)의 전제가 드려졌으며 '수양(ram)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2/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3힌 전제가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양(lamb)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4힌의 전제가 드려졌습니다. 거기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나. 월삭제사의 영적의미

- 1) 월삭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은 지난 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겠다는 결단

과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 2)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고후 5:17).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 유월절 제사(passover offering)

가. '유월절'은 정월 십사 일에 드려졌습니다
(민 28:16-18).

- 1) '이는 종교력의 첫 달인 아빍월에 이뤄졌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했을 때 3-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 2)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 12장 참조).

[민 28:16] 정월 십사 일은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며 [민 28:17]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민 28: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3)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절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4) 유월절이 1월 14일에 가졌지만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나. 하나님은 무교절 첫째날(1월 15일)과 마지막 날(1월 21일)인 제칠일째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1)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
야 합니다.

- 2) 유월절로 모인 날에는 각 가정마다 어
린양을 잡아 가족끼리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조석간에 제사를 드려
야 했습니다.
- 3)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삭때 드리
는 제물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민
28:19-25).

5. 칠칠절 제사(pentecost offering)

가. 칠칠절(오순절, 맥추절) 역시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서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
다(민 28:26).

[민 28: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홀 없는 것으로 여호
와께 화제를 드려 번
제가 되게 할 것이
며 [민 28:20] 그 소제
로는 고운 가루에 기
름을 섞어서 쓰되 수
송아지 하나에는 예
바 십분지 삼이요 수
양 하나에는 예바 십
분지 이를 드리고 [민
28:21] 어린 양 일곱
에는 매 어린 양에 예
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22]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
여 수염소 하나로 속
죄제를 드리되 [민
28:23]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
을 드릴 것이니라 [민
28:24] 너희는 이 순
서대로 칠 일 동안 매
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
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민
28:25] 제칠일에는 성
회로 모일 것이요 아
무 노동도 하지 말 것
이니라

[민 28:26] 칠칠절 처
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도 성회로 모일 것이
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1) '칠칠절'은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월절 이후의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일곱번째 안식일을 마친 다음날 주일에 지켜졌습니다.

3)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명절에 해당됩니다.

4) 오순절의 제물은 월삭 때 드리는 제물과 동일합니다(민 28:27-31).

나.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은 성령강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1) 오순절과 무교절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무교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

[민 28:27]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8:28]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8:29]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곱을 드릴 것이며 [민 28:30]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민 28:31]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
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은 무교절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 2) 성령강림 사건이 오순절 절기 때에 이
뤄졌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
순절과 영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6. 나팔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rumpets)

가. 하나님은 나팔절 날에 성회로 모이게 하셨
으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민 29:1).

[민 29:1] 칠월에 이르
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종교력의
7월(티스리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을
의미합니다.

2) 이 신년날에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3) 나팔절 때의 번제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월삭 때의 번제제물과 동일합니다(민 29:2-6).

4)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 수송아지, 수양, 어린양에 따라 각각 소제의 양과 전제의 양이 달랐습니다.(도표 참조)

번제물	소 제	전 제
수송아지	고운 가루 3/10 에바	포도주 1/2 힌
수 양	고운 가루 2/10 에바	포도주 1/3 힌
어 린 양	고운 가루 1/10 에바	포도주 1/4 힌

나.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민 29: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 29:3]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4] 어린양 일곱에는 매 어린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민 29:6]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 1) 신년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 2) 우리는 이렇듯 새롭게 살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을 향해 과감하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팔을 불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 3)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고후 5:17).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7. 속죄일 제사(Offering of the Yom Kippur)

가. 대속죄일은 일년에 한 차례 있는데 대제사가 1년 중 이 날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합니다(민 29:7-11).

[민 29:7]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9: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9:9]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

- 1) 종교력 칠월 십일(7월 10일)은 민간력으로 1월 10일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 2) 레위기 4장에 언급되고 있는 '속죄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속죄제'(레 4장)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지만 '속죄일'(레 16장)은 1년에 한 차례 백성과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치르는 속죄 제사입니다.
- 3)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나팔절 때와 같습니다. 또한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 4) 하지만 대속죄일 때는 백성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이 첨가되었습니다.

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11] 또 수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나. 속죄일 때에도 피가 분향단 뿔에 발라졌습
니다.

- 1)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레 4장)의 경우엔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일곱번 피를 뿌렸으며 분향단 뿔에 짐승의 피를 발랐습니다(레 4:6-7). 이는 다른 제사 때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제사 때에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 2) 속죄일에도 속죄제처럼 휘장 앞에 피가 뿌려졌으며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레 16:18-19).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단'을 '번제단'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속죄일 제사는 속죄제 제사보다 훨씬 크고 훨씬 의미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단'은 '분향단'임을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 16:18]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레 16: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 때에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다면 속죄일 때에도 당연히 분향단에 피를 발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속죄일 때에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 1) 속죄일에 쓰인 짐승은 숫소와 암소, 그리고 염소입니다.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염소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2) 암송아지는 정결의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암송아지는 붉은색의 암송아지를 사용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민 19:2). 보통 제사 때 쓰인 짐승은 숫컷을 사용했는데 유독 정결의식을 위한 재를 만드는데 사용된

[민 19:2] 여호와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짐승만 암컷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암송아지가 숫송아지에 비해 훨씬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 3) 붉은 암송아지는 모든 전체를 진 바깥에서 태워졌습니다(민 19:5). 보통적으로 피는 번제단에 쏟아 붓는데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까지 태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 4) 붉은 암송아지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를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어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민 19:9).

[민 19:5]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민 19:9]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돌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나. 속죄일제사의 영적인 의미

- 1)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 2) 특별히 대속죄일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니템>인데 이는 '거칠게 다르다', '억누르다', '겸손 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이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자신의 모든 세상의 정욕을 억누르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장막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abernacle)

가.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생활 했던 것을 기

넘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민 29:12)

- 1)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총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 2)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서 수확되어진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도 해서 '수장절'(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도 불립니다.
- 3) 초막절 총 8일 동안의 제사는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훨씬 다양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 4) 첫날에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한 마리씩 적어졌습니다. 첫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 드려졌는데 2일째는 12마리, 3일째는 11마리가 드려졌고 점점 그 수가 적어져서 7일째는 수송아지 7마리가 드려졌습니다. 하

[민 29:12] 칠월 십오 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칠 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지만 매일마다 수양 2마리와 어린 수양 14마리가 똑같이 드려졌습니다.

5) 제물의 규모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때 드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어린양 7마리가 드려졌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어린양 2마리가 드려졌습니다.

6) 제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모여졌습니다. 7일동안은 각 가정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함께 모여서 초막절 마지막을 장식한 것입니다.

나. 초막절제사의 영적의미

1)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고백을 담은 제사입니다.

- 2) 초막절 때 드려지는 다양한 제사방법
중의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
정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
다. 이 두 제사와 감사제사를 포함하여
'화목제'에 해당됩니다(민 29:39-40).

[민 29:39]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
호와께 이같이 드릴
지니 이는 너희 서원
제나 낙헌제 외에 번
제, 소제, 전제, 화목제
를 드릴 것이니라 [민
29:40] 모세가 여호와
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 3)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제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뀐 시대라고 해서 제
사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처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제사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4 장

/

제사장 의복

제 4 장 제사장의 의복

훈련 목적

- * 성막의 제사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워바 필독글을 읽는다.

1. 고의(linen breeches)

가. 하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해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게 하셨습니다(출 28:42).

[출 28:42]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1)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고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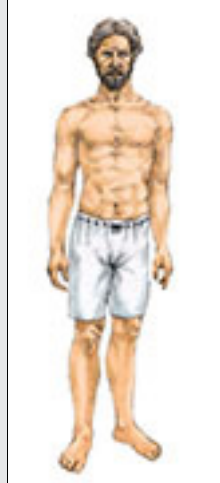
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어떻게 만들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항상 정결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
다.

- 2) 고의의 길이가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
신 이유는 그만큼 하체를 정결하게 해
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
어갈 때에나 제단에 나아가 섬길 때 반드시
고의를 입게 하셨습니다(출 28:43).

- 1) 만일 고의를 입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고
의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드러내지 않
게 하기 때문입니다.

- 2) 하나님은 음행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출 28:43] 아론과 그
아들이 회막에 들어
갈 때에나 제단에 가
까이 하여 거룩한 곳
에서 섬길 때에 그것
들을 입어야 죄를 지
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음행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창조의 능력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고전 6:18).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다. 하나님은 세마포로 고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출 39:28).

[출 39:28]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베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들을 만들고

1) 고의에 사용된 세마포는 베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포(linen)로 만든 것입니다.

2) 아마포는 그 재질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결코 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질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 속옷(tunic)

가. 속옷 역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어야 했



던 옷이었습니다(출 29:39).

- 1)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은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며 길이는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 2) 속옷 역시 가는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옷이 세마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나. 제사장은 속옷만 입고서 의식을 집행했습니다(출 28:40-41).

- 1) 제사장이 속옷차림으로 의식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출 28:39] 너는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출 28:41]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2)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속옷 차림으로 일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3) 흰색 베실로 짜여진 속옷을 입고 일을 해야만 했기에 피문은 짐승의 각을 운 반하거나 번제단에 피를 부을 때에 속옷이 더럽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옷에 비해 훨씬 빨리 더럽혀지고 훨씬 더러움이 눈에 잘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제사장의 옷을 흰색 베실로 만들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속옷과 고의를 입기 전에 먼저 몸을 씻으라 명하셨습니다(레 16:4).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1) 고의와 속옷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먼지를 털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에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 띠(sash)

가. 속옷 띠를 말합니다(출 39:29).

1) 제사장들은 오직 흰색 베실을 가지고 통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의식을 집행하기에 불편했습니다.

[출 39:29] 가는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 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 2) 하나님은 제사장의 속옷이 혈령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띠를 묶도록 하셨습니다.

나. 흰색 베실로 짜여진 속옷과는 달리 띠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베실로 수를 놓아만 들어졌습니다(출 28:39).

[출 28:39] 너는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드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 1) 성경에는 제사장의 띠에 대해서 이렇게 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례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띠가 길다는 것입니다.
- 2) 제사장에 비해 훨씬 일을 적게 하는 대제사장의 경우엔 에봇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찻습니다.
- 3) 제사장의 띠와 대제사장의 띠는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띠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세마포로 만든



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띠는 제사장의 띠와는 다른 띠였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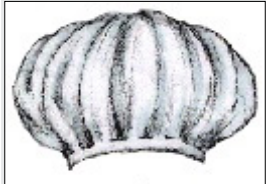
4. 관(turban)

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관'이 머리에 쓰여졌습니다(출 28:40).

1) 관을 쓰고서 의식을 집행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관을 쓰게 하신 이유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2) 관을 쓰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제물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나. 제사장의 관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관에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패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씌어졌습니다(출 39:30).

[출 39:30]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출 39:31]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1) 그 패는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습니다.



2) 관 전면에 부착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3) 그만큼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였던 것입니다.



5. 겹옷(the robe of the ephod)

가.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출 28:31-35).

- 1) 겉옷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옷이었습니다.
- 2) 겉옷은 에봇 받침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식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겉옷만 입었지만 의식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겉옷 위에 에봇을 걸쳤습니다.
- 3) 겉옷은 속옷처럼 통으로 짠 옷입니다.
- 4) 특별히 하나님은 겉옷의 목 부분이 찢어지거나 헤이지 않게 하기 위해 목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깃을 짜서 튼튼하게 제작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5) 또한 하나님은 겉옷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아 만든다

[출 28:31]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출 28:32]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출 28:33]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출 28:34]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출 28:35] 아론이 입고 여호와의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음 그곳에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었는데 석류와 석류사이에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금방울을 가장자리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6. 에봇(ephod)

가.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출 39:1-5).

- 1) 하나님께서 에봇을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신 것은 에봇은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출 39: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 39:2]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출 39:3] 금실을 얹게 처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출 39:4]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출 39:5]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짚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 39:3] 금실을 얹게 처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 2)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짚습니다(출 39:3).

나. 에봇에는 에봇 띠가 있었습
니다.



- 1) 이것은 오늘날의 허리띠와 비슷하게 만 들어졌습니다.
- 2) 재질은 에봇의 재질과 같았습니다. 에봇 띠는 에봇과 붙어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3) 또한 에봇에는 어깨에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였으며 에봇 띠를 만들어 에봇에 붙어있도록 하였습니다.

[출 28:9] 호마노 두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출 28:10]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출 28:11]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출 28:12]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견대가 달려 있었습니
다(출 28: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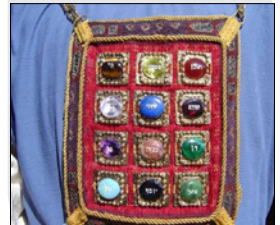
- 1) 견대에는 호
마노 보석
두 개를 달
았는데 그곳
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연치대로 각각
여섯 이름씩 보석에 새겼습니다.
- 2) 한쪽 보석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새겨졌으며 다른
한쪽 보석에는 갓, 아셀, 잇사갈, 스블
론, 요셉, 베냐민의 이름이 새겨졌습니
다.



[출 39:8] 그가 또 흉패
를 공교히 짜되 에봇
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곧 베실
로 하였으니 [출 39:9]
그것의 장이 한 뼘, 광
이 한 뼘으로 네모 반
듯하고 두 겹이며 [출
39: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출 39: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
보석 홍마노요 [출
39:12] 셋째 줄은 호
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출 39: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
라 다 금테에 물렸으
니 [출 39:14] 이 보석
들은 이스라엘 아들들
의 이름 곧 그들의 이
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
파의 각 이름을 새겼
으며

7. 판결 흉패(breastpiece of judgement)

가. 하나님은 판결 흉패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다.(출 39:8-14).

- 1) 홍패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베실에 금실을 섞여 공교히 만들었습니다.
- 2) 판결 홍패의 크기는 가로가 한 뼘이고 세로가 한 뼘으로써 대략 가로 세로 대략 20cm x 20cm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개의 보석이 장식되었습니다. 보석은 모두 네 줄 보석으로 물렸는데 첫째 줄은 홍 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로 만들어졌으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 수정으로 만들어졌고 마지막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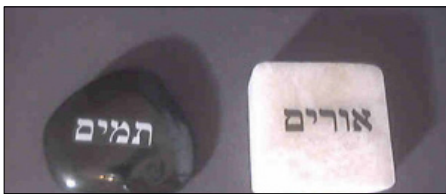
[출 39:15]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뿔아 홍패에 붙이고 [출 39:16] 또 테 돌과 금고리 돌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홍패 두 끝에 달고 [출 39:17] 그 두 뿔은 금 사슬을 홍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출 39:18] 그 뿔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 테에 매고 [출 39:19] 또 금고리 돌을 만들어 홍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출 39:20] 또 금고리 돌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윗편에 달고 [출 39:21] 청색 끈으로 홍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홍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 하나님은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도록 하셨습니다(출 39:15-21).

- 1) 정금사슬을 노끈처럼 땡아 만들어 흉패에 붙이고 흉패 두 끝에 만들어진 금고리 둘에 꿰어 매달았습니다.
- 2) 그래서 판결 흉패 윗쪽은 에봇의 어깨 견대 금테에 연결시키고 아래쪽은 청색끈으로 에봇 허리띠에 연결시켰습니다.

[출 39:15]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땡아 흉패에 붙이고 [출 39:16]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출 39:17] 그 두 땡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출 39:18] 그 땡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테에 매고 [출 39:19]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출 39:20]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윗편에 달고 [출 39:21]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8. 우림과 둠림(Urim and Thummim)



가.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뎡을 가슴에 품으라고 명하셨습니다.(출 28:30)

[출 28:30]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 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 1)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 2)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걸쳤던 판결흉패 안에 집어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 1) 히브리어로 <우림>과 <툼림>입니다.
- 2)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음역을 드래도 음역해서 기록했고 우리나라 성경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기록했습니다.
- 3) 하지만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림>은 '불꽃들'이란 '불꽃'의 복수를 의미하고

〈툼림〉은 '완전함' '성실함'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 4) 사울도 우림과 둠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삼상 28:6).
- 5) 탈무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요청하면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뭇을 가슴에 품고서 "예" 혹은 "아니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에 한가지씩만 요청해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삼상 28: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대 제사장의 예복과 명칭

The Garments of the priests

출28:1~43, 39:1~31



관

출28:39
출39:28

금패

출28:36~38
출39:30~31

견대

출28:7~14
출39:4,6~7

흉패

출28:15~29
출39:8~14
우림과 둠림
출28:30

속옷

출28:39
출39:27

띠

출28:8, 39:5
출39:29

에봇

출28:6~8
출39:2~3

겉옷(에봇받침)

출28:31~34
출39:22~24

석류와 금방울

출28:33~35
출39:24~26





5 장

/

제사장의 부르심

제 5 장 제사장의 부르심

훈련 목적

- * 성막의 제사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워바 필독글을 읽는다.

1.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식을 가질 때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레 8:2-3).

- 1) 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레 8: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레 8:3]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2)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이는결혼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나아가 온 백성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 제사장은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가장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레 8:6).

[레 8: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1)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결함을 뜻합니다.

2)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3. 제사장은 숫양의 머리에 직접 안수했습니다

가.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레 8:22).

[레 8:22]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

- 1) 이것은 저들 스스로 짐승이 되어 죽여 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 2)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4. 제사장에게 피가 발라졌습니다

가.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수양의 피를 발랐습니다(레 8:23).

- 1) 수양의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나. 모세가 수양의 피를 발랐던 장소는 세 군데입니다(레 8:24).

- 1)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 발 엄지가락입니다.
- 2)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른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엄지가락에 뿌리는 것은 세상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발 엄지라각에 피가 뿌려진 것은 세상에 거하지 말고 오직 하

[레 8: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레 8: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5. 제사장에게 관유가 발라졌습니다

가. 관유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징합니다.

- 1) 모세는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레 8:30).

[레 8:30]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 2)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할 때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6. 위임식 기간동안 회막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가.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집

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레 8:22).

[레 8:22]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
들들이 그 수양의 머
리에 안수하매

- 1) 제사장은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 2) 성막에는 성막뜰이 있어서 바깥 공기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정도 있지만 회막은 그야말로 꽉 막혀있는 공간입니다. 불과 20규빗과 20규빗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다보니 매우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5미터 x 5미터 크기의 공간이기때문에 아론과 아들들이 함께 하기엔 너무나 협소했을 것입니다.
- 3)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로 회막문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회막문 밖으로 나갔다면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7일 동안 회막 안에 거하게 명하신 것은 저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 습니다(레 8:33-36).

- 1)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 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처럼 제사 장들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 니다.

[레 8:33] 위임식은 이 레 동안 행하니니 위 임식이 끝나는 날까 지 이레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레 8:34]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 하여 속죄하게 하시 려고 명령하신 것이 니 [레 8:35]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 키라고 하신 것을 지 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레 8: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 신 모든 일을 준행하 니라

7.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사용 해야 했습니다

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 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기때문에 죽 임을 당하였습니다(레 10:1-2).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 니하신 다른 불을 담 아 여호와 앞에 분향 하였더니 [레 10:2] 불 이 여호와 앞에서 나 와 그들을 삼키매 그 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8. 제사장에게 피가 발라졌습니다

가.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레 8:22).

[레 8:22]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 1)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 2)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제작된 불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향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 3)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9.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가.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막에 들어

가 의식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레 10:8-9).

- 1) 포도주나 독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제사장도 있었겠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 2) 만일 누구든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회막에 들어가 의식을 수행할 때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 3)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의식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취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 4)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정욕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드러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레 10: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10: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가. 정결함은 세상에서의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레 10:10).

[레 10:10] 그리하여
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며 부정
정한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말합니
다.

2)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하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취하여 정
결케 하라 명하셨습니다(민 8:6-7).

[민 8:6] 이스라엘 자
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
라 [민 8:7] 너는 이갈
이 하여 그들을 정결
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
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1) 모세는 레위인을 정결케 하되 속죄의
물로 먼저 그들에게 뿌린 후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 2) 그런 다음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영육간의 정결함을 취하였습니다.

- 3)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먼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육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라 명하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민 8:11-15).

[민 8: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민 8:12]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민 8:13]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민 8:14]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민 8:15]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 1) 아론은 먼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레위인을 속죄하였습니다.
- 2) 그런다음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 3)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였습니다.
- 4) 이렇게 레위인이 정결의식을 모두 치른 다음에서야 저들은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11. 제사장은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민 8:16-18)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
셨습니다.(출 13:2).

2)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든 장자를
살리셨기때문에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출 13:15).

3)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먼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합
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육적으로는 세상
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러한 초태생의 법은 구약시대의 것이 아
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
다. 우리의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
다.

1) 십일조가 초태생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출 13:2] 이스라엘 자
손 중에 사람이나 짐
승이나 무론하고 초태
생은 다 거룩히 구별
하여 내게 돌리라 이
는 내 것이니라 하시
니라

출 13:15] 그 때에 바
로가 강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
와께서 애굽 나라 가
운데 처음 낳은 것까
지 다 죽이신고로 초
태생의 수컷은 다 여
호와께 희생으로 드리
고 우리 장자는 다 대
속하나니

것은 아닙니다.

- 2) 십일조는 십일조이며 초태생의 법은 여전히 초태생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민 18:26-29).
- 3) 성도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하며 초태생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초태생의 법은 처음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의 처음 것과 짐승의 처음 것과 재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을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민 18: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민 18: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민 18:29]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6 장

/

제사장 직분

제 6 장 제사장 직분

훈련 목적

- * 성막의 제사에 대해 배운다.
- * 제사장에 대해 배운다.
- *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스트링을 통해 성령하나님과 동행한다.
- * 영성일지에 댓글을 쓴다.
- * 워바 필독글을 읽는다.

1. 제사장의 시작

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제사장이란 단어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창 14:18).

- 1)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제사장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창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 2) 아론의 제사장이 이 땅에서의 제사를 담당하였다면 멜기세덱은 천국의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수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 1)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 2)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2.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가.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했습니
다(출 28:1).

- 1) 하나님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 2)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 3)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듯이 목회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4) 하나님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벧전 2:9)

[출 28: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제사장의 결혼

가.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결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셨습니다(레 21:7).

- 1) 성막의 제사장 직분이야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 2)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 3) 또한 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레 21:14).

[레 21:7]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레 21:14]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레 21: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 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곁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레 21:1-3).

1) 제사장은 일반적인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2) 다만 제사장들의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셨습니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여 삭발하거나 수염을 깎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욱 지켜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레 19:28)

[레 19: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과 달라서 친부모의 시신조차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레 21:11).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1) 대제사장은 친자식이 죽어도 슬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 2)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 죽임을 당하였을 때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 명하였습니다(레 10:6)

[레 10: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 친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와 친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5. 제사장을 성별하는 신체 규정은?

가.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사장을 원하셨습니다(레 21:21).

- 1) 제사장의 몸에 어떠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 2)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흠에 대해 12가지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레 21:18-21).

[레 21: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레 21:18]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레 21:19]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레 21:20]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과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레 21: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

나. 하지만 아론의 자손 중에 신체적 결함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지성

물이나 성물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었습니
다(레 21:22-23).

이 있은즉 나아와 하
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레 21:22]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
든지 먹을 것이나 [레
21:23] 장 안에 들어가
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
룩하게 하는 여호와임
이니라

6.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가.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의식을 집행하였습
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
쳐야 했습니다(신 33:10).

[신 33:10] 주의 법도
를 아람에게, 주의 율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
르치며 주 앞에 분향
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
로다

- 1)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하
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과 율법을
일상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가
르치는 것입니다.

다. 이 외에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백성
을 축복하는 일을 했으며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7. 제사장의 반열이란?

24반열에 뽑힌 자들(역대상 24: 7-18)

1반열	여호아립	13반열	훔바
2반열	여다야	14반열	예세브압
3반열	하림	15반열	빌가
4반열	스오림	16반열	임멜
5반열	말기야	17반열	헤실
6반열	미아민	18반열	합비세스
7반열	학고스	19반열	브다히야
8반열	아비아	20반열	여헤스겔
9반열	예수아	21반열	아긴
10반열	스가나	22반열	가물
11반열	엘리아십	23반열	들라야
12반열	아짐	24반열	마아시아

가.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구분하여서 성막의식을 집행케 하셨습니다.

- 1)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시킨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 2) 그 당시 제사장의 수는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하였는데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로부터 각각 24족장 중에서 제비뽑기로 제사장 직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 3) 다윗은 최대한 공평하게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통해 제사장을 선출했는데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으로 섬길 제사장을 뽑은 것은 엘르아살 가문의 족장이 16명이고 이다말 가문의 족장이 8명으로 자칫 잘못하면 불공평하게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8. 제사장의 발자취

가. 광야시대 및 가나안 정착시대

- 1)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하고서 성막의 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 2)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서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 통일왕국시대

- 1) 다윗 시대에는 사독의 후손들이 독점하였습니다.
- 2) 제사장 중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과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도왔지만 후에 아비아달

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의 반역에 가담하여 솔로몬 왕에 의해 파면되었고 오직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 3)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제사장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 분열왕국시대

- 1)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벤휈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2)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며 제사장이

아닌 왕 자신이 직접 분향하는 죄까지
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왕상 13:1).

- 3) 하지만 북왕국과는 달리 남왕국에서는
비교적 제사장 규례가 잘 지켜졌습니
다.

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 1)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기간 중에는 그야말로 완전히
제사장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 2)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
전 제사가 회복되었으며 다윗시대와
같이 제사장의 반열을 회복시켰습니
(라 6:18).
- 3) 또한 제사장의 후손 중 자신의 족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

[왕상 13:1] 때에 하나
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
에서부터 벰엘에 이르
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
는지라

[라 6: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
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을 섬기게 하되 모세
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라 2:62-63)

- 4)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후에 이방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명단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성별과정을 거쳤습니다(라 10장 참조)

- 5)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제사장들은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말 2:7-8).

마. 신약시대

- 1) 이러한 제사장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시대에 제정되었던 제사장의 24반열 제도는 신약시대까지 존속되어져 왔습니다.

[라 2:62]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라 2:63]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 2: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됨이어늘 [말 2:8]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 2)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
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눅 1:5).

[눅 1:5]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니 이름은 엘리사벳이
라

성막제사반 교재

초판발행 2014. 12. 2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국제신학교는 대안예수교장로의 개역총회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의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 버전 있음)

● 문의: 손에스디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